

“Please Sir!”



세션카드는 조린티님(@jorintea_com) 커미션입니다.
W. 12 | 배포 일자 2020.03.15 | 최종 수정 일자 2020.03.15

최근 R도시는 한창 비상사태입니다. 살인 미수 2건, 살인 15건...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연쇄 범죄 행각이 원인입니다. 현상수배지가 도배된 거리며 불안하게 웅성거리는 사람들과 TV에서 흘러나오는 매일같은 속보들... 그러니 이 일주일은 사건 담당 형사인 탐사자에게는 조금 더 고된 날이었겠습니다.

그렇게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쁘게 근무를 마친 탐사자가 폭신한 호텔 침대에 몸을 누인 그때. 덜컥. 침대 아래에서 무엇인가가 기어나옵니다. 바퀴벌레도, 귀신도 아닌 그것은... ‘그놈’입니다. 당신이 쫓던 그놈이요! 연쇄살인범이 침대 아래에서 기어나와, 당신에게 번뜩이는 총을 겨누며 사근사근하게 웃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하루만 데이트 좀 해주실래요?”

《시나리오 정보》

- ✧ 크툴루의 부름 (Call of Cthulhu) 7판 룰 기준
- ✧ 인원: 1:1 타이만
- ✧ 형식: 레일로드
- ✧ 분위기: B급 코믹 스릴러
- ✧ 시대 및 배경 : 현대
- ✧ 추천 관계: 형사와 연쇄살인범
- ✧ 추천 기능: 도약, 민첩
- ✧ 플레이 타임 : 2시간~4시간
- ✧ 플레이 난이도 : 下
- ✧ 키퍼링 난이도 : 下
- ✧ 전투: 有 | 로스트 : 無 | 신화생물: 有 | SAN C.: 多
- ✧ 주의 요소: 살인, 벌레

《 열람에 앞서 》

- ❖ 시나리오의 약칭은 **플리셜**입니다. 혹 오류를 발견하실 경우 @iqFMylaYdo3NtBh로 디엠 부탁드립니다.
- ❖ 체력이 높고, 운동 신경이 좋은 편인 캐릭터가 KPC에 어울립니다.
- ❖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을 개요 이상으로 공개계정에서 언급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급시 후XX등, 필터링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 시나리오를 그대로 즐겨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 KP와 PL의 성향, 페어의 관계성 등에 따라 개변하는 것 또한 권장합니다. 개변 후 재배포는 금지합니다. 무엇보다 KP와 PL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상》

침대 밑에 귀신이 있는 것보다, 사람이 있는 게 더 무섭지 않나요? 게다가 침대 아래에 **왜** 숨어 있었냐는 목적성을 따져본다면 아마도 사람 쪽이 조금 더 명확할 것입니다. KPC는 확실히 탐사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결론만 말하면, R도시에 수배된 연쇄살인범은 KPC가 맞습니다. 그는 원래 연쇄살인범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명망 높은 지식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일반인이거나... 무엇이 되었든. 최소한 최근 2건의 살인 미수와 15건의 살인은 부정할 수 없이 그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다만 그것이 그의 의지가 아니었을 뿐이고요. 그 모든 사건들은 로이고르의 부흥을 꿈꾸는 어느 이타과의 신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신도는 아우터 갓(이타과)을 모실 실력있는 신도(로이고르)의 양성을 위해 로이고르의 부흥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로이고르의 개체 수를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다가,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했네요. *인간 마력 노예*를 만드는 것입니다.

로이고르에게는 인간의 마력을 착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 마력 노예라 함은, 로이고르의 이 능력을 인간에게 이식해서 그 인간이 접촉하는 모든 대상으로부터 마력을 빨아들인 다음 정신이 연결된 로이고르에게 그 마력을 공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로이고르의 개체 수를 왕성하게 증가시킬 수 있을 법한, 아주 그럴듯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신도는 무작위로 점찍은 KPC에게 아주 교묘하게 로이고르의 살점을 먹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KPC의 아침 시리얼 사이에 섞여있었을 수도, 누군가와 데이트 디쉬에 섞여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만 보자면 KPC는 로이고르의 살점을 삼키게 된 탓에 그의 정신은 로이고르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로이고르의 능력을 이식받은 KPC는 접촉하는 거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마력을 흡수하는 능력을 가진 흉악한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인간은 마력을 크게 잃으면 피곤하고, 어지럽고, 병들게 되는데, 단기간에 마력을 전부 잃으면... 그렇게 죽겠군요. 사인은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피는 어떠한 화학적 반응도 없이 딱딱하게 응고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죽은 15명은 정말 그의 의지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냥 손을 잡거나, 키스하거나... 그 정도의 일이었을 뿐이니깐요. KPC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본래라면 KPC는 로이고르가 충분히 마력을 섭취하고 그 무리를 불릴 때까지 이 짓거리를 계속해줬어야 했으나, 이타과의 신도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KPC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열간이가 아니었습니다. KPC는 기어코 KPC를 관찰하기 위해 그의 주변에 숨어있던 이타과의 신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력을 흡수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에게 걸린 로이고르의 저주를 풀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독제독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신화생물 비행 폴립의 부속물로 만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로이고르와 마찬가지로 실체와 비실체를 오가는 이 신화 속의 괴물을 섭취하면, 비행 폴립과 로이고르가 KPC의 몸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다룰 테고, 그때 KPC가 자신의 정신으로부터 분리된 둘의 주술을 모두 토해버리면 KPC는 이 끔찍한 능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흡수해왔던 마력도 흩어지면서 죽었던 15명의 사람들에게 돌아가겠죠. 운이 좋고 지나치게 늦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안실에서 눈을 뜨겠군요!

그렇다면 비행 폴립으로 만든 음식은 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신화생물로 만든 음식을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KPC의 취조로 인해 바지를 짙은 색으로 물들이면서 이타과의 신도가 더듬더듬 뺄은 정보에 따르면, 이 도시에 비행 폴립으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탐사자가 묵기로 한 호텔인데요... 문제는 그 음식을 호텔 안 어디서 다루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으악.

그것까지는 모른다구요! 정말로 몰라요!” 그리고 기절. 적당량의 필요한 정보를 얻은 KPC는 기절한 이타과의 신도를 내버려두고 유유히 빠져 나왔습니다. 이제 살인 미수 3건이 되었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그의 결백을 증명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KPC가 원래부터 연쇄살인범이었다면, 이전의 n건의 범죄 역시 이타과의 신도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으로 누구를 세운담. 신원이 확인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임받고 있을 사람… … 이 연쇄 살인사건의 담당 형사인 탐사자가 딱 적당하겠군요!

그래서 KPC는 그의 호텔 침대 밑으로 숨어듭니다. 그와 함께 비행 폴립으로 만든 식사를 찾기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형사님, 하루만 데이트 좀 해주실래요?”

《KPC의 능력》

KPC는 현재 일종의 마력 숙성 저장창고입니다. 맨살이 닿는 거의 모든 사람의 마력을 흡수해버립니다. 접촉 시간 1초당 마력을 10씩 흡수합니다. 일대일의 대치 상황에서 마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잃은 인간은 체력을 마력으로 변환해서 잃습니다. 그렇다면 왜 KPC와 접촉한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초… 어쩌면 3초. KPC가 마력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데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KPC는 이런 능력이 별로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데도, 까딱하면 경찰에 붙잡히게 생겼으니까요.

이 능력(저주)은 로이고르의 지배로부터 풀려나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현재는 온몸을 뽀뽀 감싸는 식으로 모르는 사람과 우연찮게 접촉하면서 벌어지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스크를 쓰고, 모자도 쓰고, 장갑을 끼고… 하는 식으로 KPC의 패션을 정해주세요.

《자료》

맵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에 나온 연출은 매우 왜곡되고 극적인 상황을 위해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으므로, 절대 따라하거나 깊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ex) 엘리베이터가 멈췄다고 해서 안쪽에서 천장 구출구를 열 수 없습니다. 스프링클러에 총을 쏜다고 물이 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걸 합니다.)

《1장》: 도입

탐사자는 호텔 침대에 등을 누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시체 2구가 발견됐고요. 이제... 살인 미수 2건, 살인 15건. 도합 17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대체 어느 미친놈이 이렇게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건지.

그 놈 탓에 눈코 뜰새없이 바쁜 당신이 오늘 머무를 곳은 도시 중심에 위치한 H 호텔의 12층 1202호입니다. 도저히 집까지 들어갈 여유가 안되니까요. 내일도 아침 일찍부터 사건 현장들을 돌아다니며 수색망을 좁혀나가야 하고...

♪...

아.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신과 오랜기간 합을 맞춰왔던 법의관이네요.

법의관: “안녕 탐사자. 호텔은 도착했어?”

탐사자: “막 누웠어. 무슨 일이야?”

법의관: “시신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알려달라고 했잖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너한테 먼저 알려주려고 했지.”

탐사자: “그래서, 어떤데?”

법의관: “살해수단은 여전히 원지 모르겠어. 하지만 피해자들의 몸 안의 피가 전부 경화되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그럴만한 독극물을 먹일 수는 없었을 텐데...”

탐사자: “그렇군... 수고했어.”

법의관: “뭔가 더 밝혀진다면 연락할게. 좋은 밤 보내.”

탐사자가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문 너머로 직원이 두 번 똑똑, 노크하곤 말을 걸어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필요하신 룸 서비스는 없으신가요?”

탐사자가 무엇이든 대답하고 나면, 바로 그때, 덜컥. 침대 아래에서 무엇인가가 기어나옵니다. 바퀴벌레도, 귀신도 아닌 그것은... ‘그놈’입니다. 당신이 쫓던 그놈이요! 연쇄살인범이 침대 아래에서 기어나와, 당신에게 번뜩이는 총을 겨누며 사근사근하게 웃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하루만 데이트 좀 해주실래요?”

“아, 그 전예요... 룸 서비스로 저녁 메뉴 하나만 시켜주세요. 아직 밥도 못 먹었거든요.”

탐사자가 반항하려고 한다면… KPC는 지체없이 탐사자 바로 옆 베개에 냅다 총을 갈겨버립니다. 소음기가 달렸는지 큰 소란은 일지 않았지만, 총을 맞은 베개가 터져 깃털이 나풀나풀 날아다니네요… …저게 당신이 될 수도 있다는 쓸데없는 직감이 뇌를 예리하게 찌릅니다.

“아이~ 살해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형사님도 그걸 알아야 잡으실 거 아니에요.”
“네? 하루만 좀 어울려주세요~ 형사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전부 풀어드릴 테니까요.”

탐사자와 적당히 타협하고 나면, KPC의 요청대로 룸 서비스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은 파스타, 스테이크, 라자냐가 있는데 무엇을 가져다 드리면 될지 물어옵니다. KPC는 탐사자에게 아무거나 하나 시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정 탐사자가 KPC에게 메뉴 선택 권한을 넘긴다면… 파스타로 선택해주세요. 직원은 잠시 기다려 달라는 말을 남긴 뒤 멀어집니다.

직원이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린 뒤, KPC는 탐사자의 머리에 겨눴던 총을 거두고… 대신 탐사자의 목이나 팔에 검은색의 피를 하나 두릅니다. 케이블 타이처럼 생겨서 한 번 조이면 자력으로 풀 수 없는 형태입니다.

“잔. 형사님을 위한 폭탄이에요.”
“테러범들의 유구한 협박 있잖아요?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터트리겠다!’ 대충 그런거죠.”

탐사자를 KPC에게 협조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입니다. 사실 이건 폭탄도 뭇도 아닌 정말 검정색 케이블 타이지만… 폭탄이라고 의심한다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KPC는 이 폭탄에 대해 설명을 길게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폭탄도 터진다니, 해제 코드는 나 밖에 모른다니, 그냥 오늘 순순히 데이트를 하고 나면 풀어줄테니 너무 걱정은 말라는 등…** 하는 식입니다. 적당히 탐사자와 KPC가 싸우면서… 유혈사태로 번지기 전에, 룸서비스가 도착합니다.

KPC가 나가서 음식이 담긴 접시를 가져옵니다. 얼굴을 마스크나 선글라스 따위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현상수배범이지만 괜찮습니다. 애초에 여긴 형사가 예약한 걸로 되어 있는 방인걸요!

■ 룸서비스 식사

KPC와 탐사자가 나눠먹을 수도 있고 각자 하나씩 시킬수도, KPC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개변해서 사용해주세요. 일단 ‘뭔가 먹어보려고 시도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1) 파스타

평범한 토마토 소스를 사용한 파스타입니다. 소스에 같이 들어간 마늘, 양파, 올리브 따위의 재료가 알맞게 익어서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면은 벤코토로 꼭 익어서 좋은 식감이구요… 훌륭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KPC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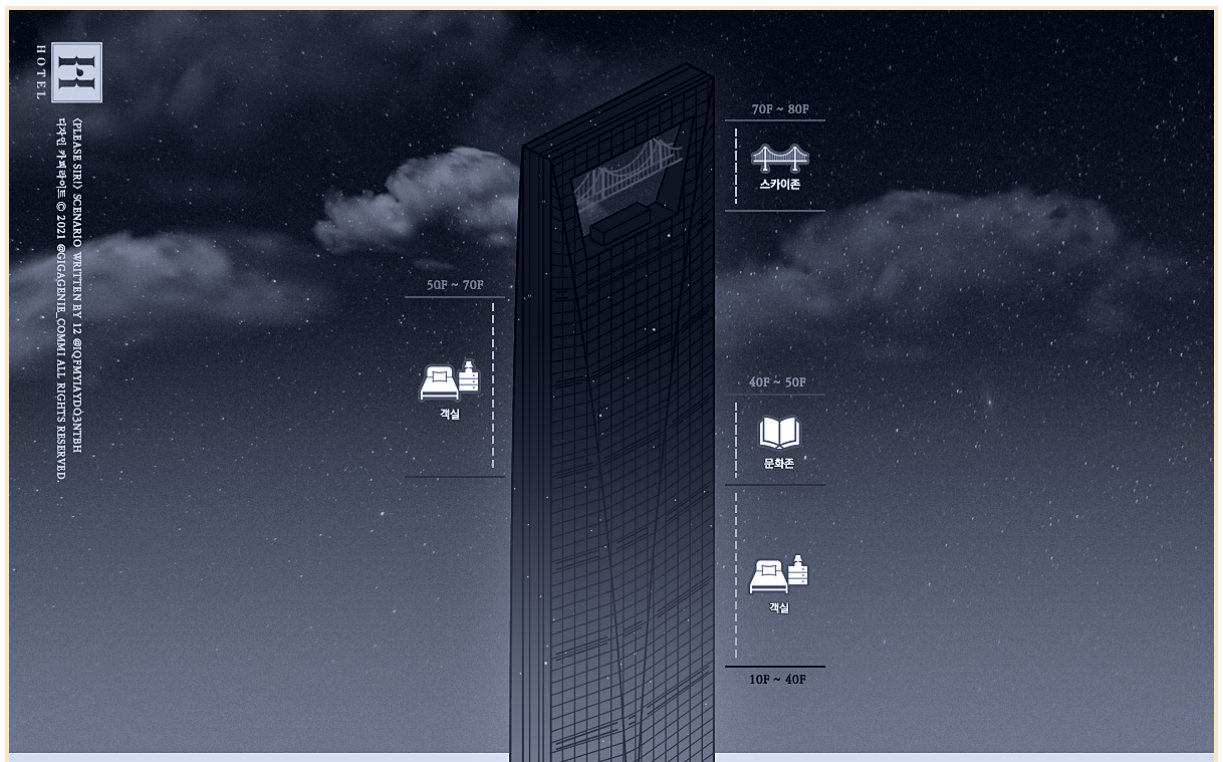
2)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로 익힌 스테이크입니다.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사용해서 담백한 맛이 납니다. 통후추를 그라인더로 갈고, 몇가지 허브를 사용해서 양념을 했군요. 적당히 짭조름한 맛이 딱 기분 좋을만큼 느껴집니다. 훌륭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KPC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네요.

3) 라자냐

라자냐에 듬뿍 얹어진 라구 소스가 부담스럽지 않고 깔끔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향이 주린 배를 자극해줍니다. 치즈가 주욱 늘어나서 시각적으로도 볼만합니다. 훌륭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KPC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네요.

KPC는 대충 식사를 마칩니다. 앞으로도 많이 먹을 거라서 굳이 식사 RP에 열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 중에는 비행폴립의 부속물이 든 식사가 없었기 때문에 KPC는 어쩔지 아쉬운 눈치로 입맛을 다시면서 접시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호텔 내부 지도를 꺼내드네요. **탐사자에게도 핸드아웃으로 지도를 배부해주세요.**



“어디보자~ 어디부터 가야 좋을까요? 제가 호텔 데이트는 처음이라서.”
“음~ 아무래도 전시회 같은 곳에 가면 가판대에서 파는 먹을 것들이 많겠죠?”
“결정했다! 전시회를 보러 가요!”

《2장》: 전시회

이 사람… 데이트와 식도락 코스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탐사자가 싫다고 하든 어쩌든… 파르페를 파는 가판대로 다가가면 딸기 파르페, 바나나 파르페, 초코 파르페등을 팔고 있습니다. 두 개를 사거나 하나를 사서 먹습니다. 탐사자에게 재력 판정을 해서 파르페를 사달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번 음식 역시 비행폴립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꺾입니다. KPC는 처음 먹고 싶어 했던 것보다 느릿느릿하게 먹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끈적하게 손에 묻을 때까지요. ...어쩔 수 없이 녹은 아이스크림이 묻은 **한 쪽 장갑은 버려야겠네요.** 적당히 RP로 소화하면서 그동안 전시회를 구경해주세요.

■ 전시회

현대미술 전시회입니다. 꽤 유명한 전시회인지 가족들부터 연인들까지 삼삼오오 모여 전시회를 구경하고 있네요. 그림부터 동상도 보이고, 조각이나 행위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팜플렛 배부 | ‘현대미술 전시회’라고 크게 적혀 있는 팜플렛입니다. 전시회에서는 여러가지 예술품들부터 행위 예술까지 다양한 범위의 현대미술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비싼 것은 중앙에 있는 조각상 같네요.

조각상 | 역동적인 자세로 조각된 남성의 조각상입니다. 특이한 점은... 재료가 대리석은 아닌 것 같네요. 이거. 황금인가요? 이렇게 무른 재료로 조각을 했다는 데에서 생기는 경이감 뒤로 돈을 쳐발랐구나 싶은 감상이 뒤따릅니다.

그때, ...모델건을 들고 서성이는 사람들 한 무리가 눈에 띄니다. 흰 두건을 뒤집어쓰고 앙증맞은 악어 문양의 표식을 맨어깨에 새기고 있습니다. 타투, 헤나인가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KPC가 헉, 하고 잠깐 곤란한 눈치로 탐사자의 뒷통수를 쳐서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형사님! 고개 숙여요!”

“저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지나가요. 젠장, 장소를 잘못 골랐어...”

“아니, 사이비 같은 사람들인데... 좀 복잡한 사정이 있거든요.”

탐사자가 KPC에게 설명을 요구하면, 바로 그때! 흰 두건을 뒤집어쓴 사람들이 일제히 천장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갑니다. 개중 몇 발은 스프링클러에 잘못 맞아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내리고, 전시회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까아아악!! 으악!! 저 사람들 뭐야!!*

흰두건1: 저녀석이다! 저녀석을 잡아야해!

이게 무슨 소란이죠? 당신이 형사로서 현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무리를 유심히 살피면, 흰 두건 무리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뺨은 손 끝은 정확히... KPC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옆에 뻔뻔하게 서 있던 KPC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당신의

손을 잡고 재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뛰어요!!!”

민첩 판정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성공 시 ‘와플 가판대’로, 둘 다 실패 시 ‘조각상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투다다다!! 기관총 여러대가 일제히 KPC를 노리고 쏘아듭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했네요. 그들이 노리는 건 정말로 KPC 뿐인지, 소리는 요란하지만 민간인의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지고, 바닥은 물바다가 되고… KPC가 당신의 귀에 속삭입니다.

“엘리베이터로 뛰어요!”

민첩 판정합니다. 성공 시 때맞춰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타는 데에 성공하고, 실패 시 ...층에는 맞지 않았지만, 깨진 조각상의 파편이 어깨에 박혀듭니다. hp를 2만큼 차감합니다. 소름끼치게 아프네요.

KPC는 민첩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KPC는 엘리베이터와는 다른 곳으로 뛰었습니다. 바로… 와플 가판대에서 와플을 주워먹고 있네요. 비행 폴립의 부속물로 만든 음식이 혹시 와플일까? 하는 기대감 탓이지만…사정을 모르는 탐사자에게는 미친 짓이고, 역시나 이 와플도 비행 폴립의 부속물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와플을 우물우물 씹으면서, KPC도 뒤늦게 엘리베이터에 합류합니다. KPC가 작은 테이블 하나를 엄폐물 삼아 엘리베이터 입구를 막습니다. 테이블이 버티는 동안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위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탐사자가 아랫층을 눌러놓았더라도 똑같습니다. 대체 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위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내 방송이 들려옵니다.

딩동댕 ♪ 호텔 문화예술층에서 총기난사 난동이 발생하였사오니, 출입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탐사자가 다쳤다면 KPC가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장갑 한 쪽을 잃어버렸으니 그쪽 손과 탐사자의 맨 피부가 접촉하지 않도록 RP에 주의해주세요.

“제대로 묶어뒀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올 줄은 몰랐네요.”

“탐사자, 잘 들어요. 그동안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분명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을거예요.”

“하지만, 믿기 어렵겠지만. 범인은 정말로 내가 아니니까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층의 중간에서 덜컥. 멈추더니… 엘리베이터 창 너머로 층을 들고 달려오는 놈들이 보입니다.

흰두건1: 저기 있다! 잡아!

KPC가 찢, 하고 혀를 차더니 탐사자를 돌아보고… 갑자기 탐사자의 어깨를 꺾 누르더니 엘리베이터 내부 손잡이를 밟고 훌쩍 올라섭니다. 지금 어깨를 밟은건가요?! 그리고 천장을 향해… 탕! 탕탕! 총을 갈깁니다. 항의할 새도 없습니다. 덩달아 엘리베이터 문짝 너머에서도 흰 두건 무리가 열심히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 총을 쏩니다. 문짝에 찌적찌적 빠른 속도로 금이 가고…

천장의 보이지 않던 개구부의 철판이 힘없이 나가떨어지며 KPC가 그 위로 훌쩍 기어오릅니다. 어느새 엘리베이터로부터 탈출한 KPC가 천장에 열린 구멍 너머로 당신에게 손을 뻗습니다. **장갑을 낀 손입니다.**

“이리 올라와요!”

퐁! 마침내 총알 하나가 단단한 엘리베이터 문을 부수고 안쪽으로 쏟아져들어옵니다. 어서 이곳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총에 맞아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탐사자가 그 손을 잡는다면… **탐사자, 도약 판정합니다.** 실패할 경우에는 KPC의 근력 판정을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둘 다 실패한다면 엘리베이터 천장으로 도망치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문의 부서진 파편이 탐사자의 다리를 거세게 때려서 hp를 2만큼 차감합니다. 다리가 저릿저릿합니다. 당연히 뛰는 데에 지장이 있지만… 어찌겠어요. 살려면 뛰어요!

《3장》: 스카이트리

KPC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공공대며 빠져나오면, 엘리베이터가 열심히 올라와준 덕분에 70층입니다. 사람들은 총기 난동 안내 방송을 들었는지 거의 다 빠져나가고 한산합니다. 덕분에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엉망인 모습으로 기어올라온 탐사자와 KPC에게 시선이 집중되네요.

“헐… 사람들이 형사님 때문에 신경 쓰여 하잖아요.”

탐사자가 뭐라고 반박한다면, 그때, 탐사자의 앞에 조그만 발이 보입니다. 조그만 여자아이입니다. 여덟살이나 겨우 되었을까요?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잘 포장된 쿠키를 하나 꺼내 당신에게 속 건넵니다. 당신의 꿀이 제법 안쓰러웠기 때문일까요?

“와,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영화 찍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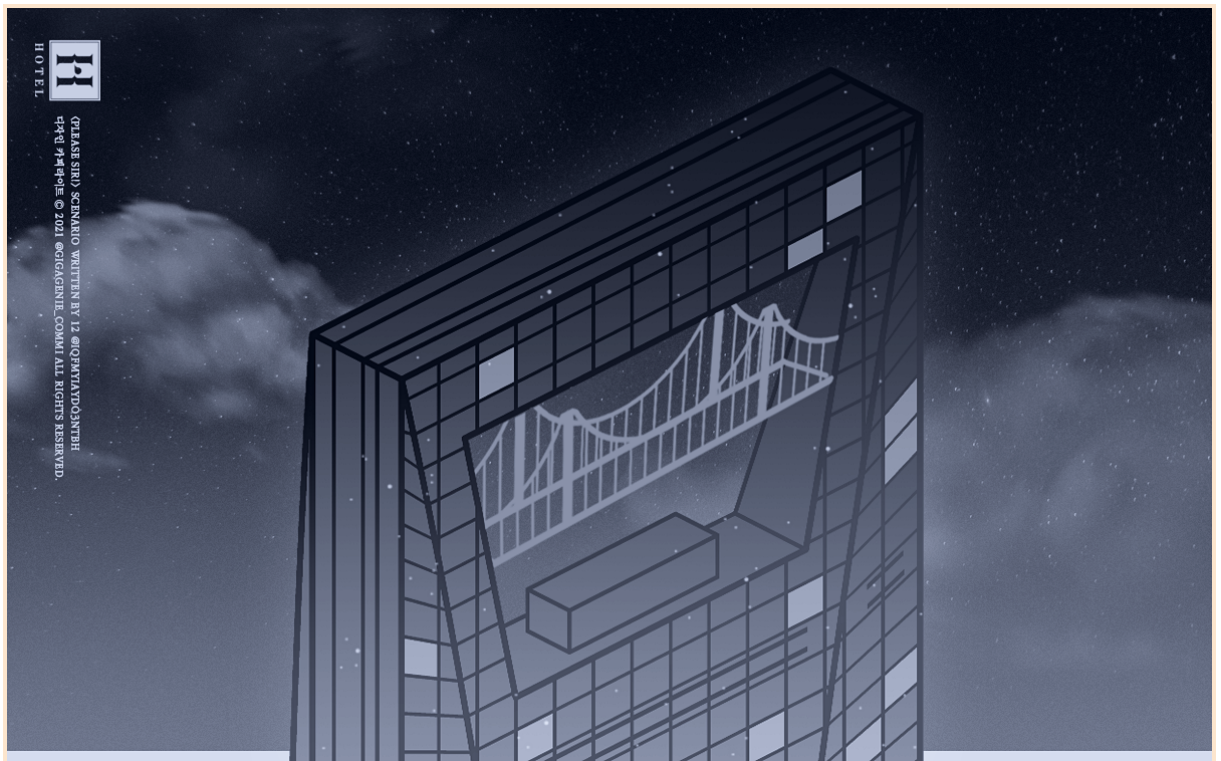
“애! 뭐하는 거야. 위험해! 이리 와!”

그러나 바로 엄마처럼 보이는 사람이 번쩍 들어올려서 아이를 안아 들고 비상구로 대피시킵니다. KPC가 얼굴을 삭 가리면서 탐사자를 툭툭 칩니다. 탐사자가 받은 쿠키를 먹을 여유가 없도록 해주세요!!

“이런 인기… 저 덕분인 거 아시죠?”

탐사자의 어이가 실종되든 말든… 흰 두건을 쓴 사람들이 중앙 계단을 올라 우르르 나타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포위될 거예요! KPC가 찢, 하고 혀를 차더니 당신의 손을 잡더니 스카이트리트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스카이트리트는 난간부터 바닥의 모든 면이 유리로 이루어져 있고, 겨우 세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습니다.



탐사자에게 상세 지도를 핸드아웃으로 배포합니다. 유리 바닥 아래로 아찔한 도시의 야경이 그대로 내려다보입니다. 높은 곳이라 그런지 바람도 차갑고 거세네요.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계속해서 두다다다… 들려오던 총격음이 뚝 멍습니다.

뭐죠? 탐사자가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는… 납작 엎드려서 발발 떨어지고 있는 흰 두건 무리와… 그 가운데에 갈퀴로 바닥을 몇 번 긁는… 거대한 악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어는 아닐 터입니다. 마치 포유류처럼 길게 뻗은 다리로 몸을 지탱해 세우고, 길쭉한 허리는 잔뜩 굽혔습니다. 호텔 조명을 받아 번뜩이는 비늘들이 전부 수천수만개의 눈알처럼 보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불길함이 느껴지는, 저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생물이라는 것을 자연히 깨닫게 됩니다.

■■■■를 목격한 탐사자, 이성 판정합니다. (0/1d8)

그것은 목 아래로 끔찍한 굵는 소리를 몇 번 내더니, 그대로 탐사자와 KPC를 향해… 돌진합니다!!
탐사자, 민첩 판정으로 피합니다.

성공 시 → 가까스로 피해냅니다. 그것이 허탕을 친 게 분한 눈치로 크게 한 번 포효하더니…
앞발을 획 휘두릅니다. 그것으로부터 파란 파장파가 날아오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직감하는
그 순간에… “윽!!” KPC가 당신을 감싸안듯 밀쳐내곤 대신 맞아 다리 아래로 떨어집니다. KPC의
체력을 2d4만큼 차감합니다.

아니, 떨어진 줄만 알았습니다. 그가 다리의 난간이 박살난 부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당신에게 장갑을 끼지 않은 쪽의 손을 덜덜 떨며 잡아달라는 듯 내밀다 말고, 뭔가
깨달은 눈치로 입술을 질끈 깨웁니다.

“...내 손 잡지 마요!”

실패 시 → 아! 당신이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직감하는 그 순간에… “윽!!” KPC가 당신을
감싸안듯 밀쳐내곤 대신 맞아 다리 아래로 떨어집니다. KPC의 체력을 2d4만큼 차감합니다.

아니, 떨어진 줄만 알았습니다. 그가 다리의 난간이 박살난 부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당신에게 장갑을 끼지 않은 쪽의 손을 덜덜 떨며 잡아달라는 듯 내밀다 말고, 뭔가
깨달은 눈치로 입술을 질끈 깨웁니다.

“...내 손 잡지 마요!”

...아까부터 묘하게… KPC가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왜죠? 닿는다고 좀
닿기라도 하나요? KPC는 대신 그 손으로 품을 뒤적이더니 **와이어 건**을 꺼내 당신의 발치로
던집니다. 저 멀리 있는 괴생명체가 다시 당신에게 돌진하려 앞발로 다리의 바닥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발톱과 유리가 마찰하면서 찌적찌적 금이 가고, 끔찍한 소리가 납니다.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죽으면 당신도 죽어요!”

“와이어건을 저 위에 있는 케이블에 쏘서 걸친 다음, 와이어를 잡고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요!”

“그럼 당신한테 내가 매달릴게요! 할 수 있어요!”

와이어건의 작동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케이블도 바로 코앞이에요! 몇십미터쯤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낫겠죠. 괴생명체가 몸을 한 차례 뒤틀더니… 다시 당신에게 돌진합니다! **이 돌진에 당하면 체력을 2d4만큼 차감합니다. 데미지를 일부러 알려줘서 탐사자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편이 좋습니다.** 와이어 건을 케이블 타이에 연결시키고 나면, 자, 이제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면 됩니다! 저 괴생명체를 피해서요! 탐사자, **도약 판정합니다.**

성공 시 → 무사히 다리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아래로 끝없이 떨어지는 느낌 대신 와이어가 케이블에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금방 팽, 하는 반동이 느껴집니다.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KPC가 눈을 질끈 감더니 당신을 향해 뛰어내려 완벽하게 허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휴, 진짜 죽을 뻔 했네요.”

실패 시 → …도움닫기가 조금 부족했나요?! 헛발질과 동시에 부서진 다리 부분으로 미끄러져내리다시피 떨어집니다. KPC가 눈을 질끈 감더니 난간에 매달리던 손을 놓고 당신을 향해 달려들어 허리를 단단히 잡고 와이어를 잡은 손을 마주 감싸줍니다. 장갑을 낀 손 쪽입니다. 아래로 끝없이 떨어지는 느낌 대신 와이어가 케이블에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금방 팽, 하는 반동이 느껴집니다.

“휴, 진짜 죽을 뻔 했네요.”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신세지만, 저 위에서 입맛을 다시는 괴생명체의 입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괴생명체가… 다리의 지지대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길쭉하게 뻗은 다리를 이용해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따라 그것을 본 KPC가 다급하게 몸을 좌우로 흔들어댁니다.

“좀 흔들어보세요! 반동, 반동을 이용해서 저쪽 건물로 넘어가요!”

탐사자와 KPC가 열심히 꿈틀대면, 와이어가 천천히 앞 뒤로 흔들리면서… 충분히 반대쪽 건물에 가까워집니다. 반대쪽 건물의 창 역시 전부 통유리창입니다. 저걸 깨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든, 없든, 선택지가 저것뿐인걸요! 괴생명체가 거의 당신의 머리 위쪽까지 내려왔습니다. 걸죽한 침이 당신의 머리를 타고 코까지 흘러내립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와장창! 어딘지 모르는 층으로 유리창을 완벽하게 깨고 데굴데굴 굴러들어왔습니다. 체력을 2만큼 차감합니다. 유리 파편이 몸 이곳저곳에 박혀 따갑습니다. 그래도 성공이에요! 안전할지도? 모르는 곳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4장》: 수족관

“성공했네요! 전부 제 덕분인거 알죠?”

...하고 떠들어야 할 KPC가 웬일로 잠잠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곳은 아주 어둑어둑합니다. 푸른 불빛들이 사방에서 어슴프레하게 비쳐오고... 물비린내가 납니다. 복층 수족관의 위층으로 굴러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느새 벌떡 일어난 KPC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계단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아래를 덩달아 쳐다보면, 아까 탐사자와 KPC를 쫓아조던 그 괴생명체가... 아직 유리가 설치되지 않은 수족관의 물 속에 어림잡아 열마리는 헤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많은거죠? KPC가 사람들과부터 흡수한 마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나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할 말을 잃은 KPC가 텅텅 주저앉더니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다 끝났어요... 망했다구요.”

“여기서 어떻게 탈출해요? 이걸 나도 답 없어요.”

절망적인 목소리가 암울합니다. 탐사자가 애가 왜이러나 싶어서 다가오면, 목소리가 바르르 떨리면서... 진실을 고백합니다. 눈물의 RPE타임입니다. 탐사자에게 최대한 짜증나게 들리도록 징징거리면서 RP해주세요.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형사니임...”

“살인 사건들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와 맨 살이 닿는 것들은 전부 죽더라고요.”

“...물론 믿기 어려우실 건 알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KPC가 힘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듭니다. 입구가 밀봉된 그것의 안에는... 더듬이를 바짝 세운 바퀴벌레가 한 마리 들어있습니다.

“...잘 보세요.”

KPC가 그것을 손에 털고 맨 손으로 만지자. 1초, 2초쯤이나 지났을까요? 바지런히 KPC의 손 위를 돌아다니던 바퀴벌레가... 갑자기 벌렁 뒤집어지더니 부들부들 떨며 딱딱하게 굳습니다. KPC가 죽은 바퀴벌레를 바닥에 버립니다.

“이상하죠? 원인도 모르겠고, 저랑 닿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고, 애써서 찾은 게 저 광신도 집단이었어요.”

“한 놈이 절 멀리서 음침하게 감시하고 있더라구요. 수상하죠? 그래서 *아, 이 문제의 근원은 저 놈들에게 있겠구나!* 했더니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절 감시하던 놈을 납치해서… 이상하게 보지 마요. 먼저 스토킹한 쪽이 잘못이잖아요?”

“하여간에, 조금 협박했더니 그놈이 엉엉 울면서… 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거라고. 이 호텔에서 파는 음식들 중에 한가지 정도는 날 정상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음식일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먹었는데. 아직도 차도가 없네요.”

혹시 이 타이밍에 바로 여자아이가 준 쿠키를 떠올리는 탐사자가 있다면, ENDING A로 진행합니다.

“미안해요. 형사님… 제대로 데이트 시켜주고 연쇄살인범도 앞에 대령시켜주려고 했는데… 제가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증언도 해주셔야 하구요…”

어쩐지 마지막 말이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연쇄살인범이라는 오명이 억울해서… 제대로 따지면 저 무리가 범인이잖아요! 저는 피해자고!”

어느정도 대화?를 마치고 나면, 아까 유리 깨지는 소리 때문인지, KPC의 짜증나는 징징거림 때문인지. 아래층의 괴물들이 인기척을 느꼈는지 눈알을 뒤룩뒤룩 굴리면서 계단 위로 어기적어기적 올라옵니다. 속도가 꽤 빠릅니다. 구석에 살짝 열린 창고 문이 보입니다.

KPC는 징징거리느라 진이 빠져서 엎어져 있습니다. 이놈을 어떻게든 끌고 들어가서 안에 숨는다면… 만약 탐사자가 KPC가 짜증나서 챙겨주지 않는다면, 탐사자의 다리에 매달립니다. 민첩 판정합니다.

성공 시 → 그 괴생명체가 2층에 완전히 올라오기 전에 창고 안에 숨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금방 문을 연타하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쿵쿵. 쿵쿵쿵… 쿵쿵쿵…!!!**

실패 시 → 창고 문을 닫기 직전, 그 괴생명체와 시선이 마주친 것 같습니다. 세로로 길게 찢어진 파충류의 눈알이었죠.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불길한… 기운에 가슴 안쪽이 찡하게 아픕니다. 이성을 1만큼 차감합니다. 저것은 분명히. 반드시… 금방 문을 연타하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쿵쿵. 쿵쿵쿵… 쿵쿵쿵…!!!**

창고 안에는 흰 두건이 한 박스 쌓여 있고, 라이플이니, 유탄 발사기니 하는 총기류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아래에 괴생명체가 많다 싶더니, 흰 두건 무리의 본거지인 모양입니다.

뜯어지려고 하는 문짝을 KPC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 파이프를 주워서 막습니다. **쿵!!! 쿵!!!**
들썩이는 문짝에 KPC가 힘겹게 문고리 사이에 쇠파이프 몇개를 더 끼웁니다.

“형사님! 좋은 생각 없어요?”

문득 탐사자의 발 아래에 밟히는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XXX.XX.XX 보고서

로이고르님들에게 충분한 마력을 공급하기 위해 마력 공급 창고를 한 명 만들었습니다. 그 놈은
손에 닿는 사람들의 마력을 모두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마력을 흡수당한 사람이 죽든 말든, 저희
알 바는 아니죠. 뭐!)*

로이고르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놈이 더 많은 사람의 마력을 흡수할수록, 로이고르님도 강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놈이 마력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는다면...

...아까 KPC가 뭐라고 했죠? 이 호텔의 음식 중 한 가지는 그... KPC와 닿은 사람을 죽인다는 믿을
수 없는 능력을 없애준다고 했었죠. KPC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 문 바깥의 괴물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KPC의 능력을 없애면 자연히 따라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이러한 사실을 지능 판정을
통해 알려주어도 좋고, 스크립트로 자연스럽게 주어도 괜찮습니다.**

“형사님!! 제 말 듣고는 계신거예요??”

KPC가 정신 사납게 탐사자의 목살을 잡고 흔들어댁니다... 열심히 고민중인 당신의 마음은 조금도
몰라주고요... 미운 자식...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쿠키네요. 이걸
언제 챙겼죠?

아,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기어올라올 때 어느 아이가 줬었잖아요. 그러고보면 이것도 **호텔의
음식**이네요. 혹시... 정말로... 오늘처럼 엉망진창인 하루에 딱 한 번의 행운이 허락된다면...

탐사자가 그 쿠키를 KPC에게 먹이면, **ENDING B로 진행합니다.**

《ENDING》:

- ✧ ENDING A → 눈치 빠른 형사님!
 - ✧ ENDING B → 바로 그거예요 형사님!
-

『ENDING A. Yes Sir!』

쿠키를 날름 받아먹은 KPC의 눈이 불현듯 커지더니, …고개를 숙이고 괴로워합니다.

“흐억, 큼…”

KPC의 입에서… 꾸물거리는 검은 액체들이 기어나오더니, 어딘가로 후다닥 도망칩니다. 방금 벽 틈 사이로 기어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곤 아래층에서 **침범!!!** 하고 큰 소리가 울립니다. 아래층을 내려다보면, 아까 물을 바글바글하게 메우고 있던 괴생명체 무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원진 몰라도 해결된 모양이에요!

지이잉… 탐사자의 주머니에 든 전화기에서 전화 벨소리도 울립니다. 법의관입니다. “**탐사자. 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수화기 너머의 상황이 다소 시끄럽습니다. “**시체들이 살아났어. 전부 다! 세상에. 아직 배를 안 갈라서 다행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탐사자의 손에서 강제로 핸드폰을 낚아채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손이 있습니다. 전부 토하고 나니 정신이 바로 들었는지 파리한 인색의 KPC입니다.

“와, 진짜로, 해결됐네요…”

“형사님… 이제 저한테도 좀 신경써주시면 안될까요?”

“오늘 저랑 데이트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협박과 공갈과 난장판으로 이루어진 데이트 말이죠… 자세한 진상은 아직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리고 창문이고 엘리베이터고 개박살이 났으니 시말서를 써야할지도 모르겠죠. 당신 앞에서 방글방글 웃고 있는 저 놈 때문에… 그래도, 이 데이트의 막바지에 이르러 당신이 일주일간 썩빠지게 고생한 사건이 마무리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폭탄은 어찌죠? 당신한테 짝 매어진 그 불길한 폭탄이요. 그때, KPC가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에서 펜치를 꺼내 그것을 자릅니다.

“짹.”

“이거~ 그냥 사실 케이블 타이였어요.”

“형사님도 참 겁이 많으시다니까~!”

탐사자, KPC 생환

보상: 이성 1d3만큼 회복, 로이고르와 손 잡고 이타과를 승배하던 사고도 무리에 대한 단서

『ENDING B. Please Sir!』

쿠키를 날름 받아먹은 KPC의 눈이 불현듯 커지더니, …고개를 숙이고 괴로워합니다.

“흐억, 큼…”

KPC의 입에서… 꾸물거리는 검은 액체들이 기어나오더니, 어딘가로 후다닥 도망칩니다. 방금 벽 틈 사이로 기어들어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문을 거세게 내리치던 소리도 잠잠해집니다. 문을 열어보면, 분명 방금 전까지 위협적으로 문을 부수려 들던 괴생명체 무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원진 몰라도 해결된 모양이에요!

지이잉… 탐사자의 주머니에 든 전화기에서 전화 벨소리도 울립니다. 법의관입니다. “탐사자. 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수화기 너머의 상황이 다소 시끄럽습니다. “시체들이 살아났어. 전부 다! 세상에. 아직 배를 안 갈라서 다행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탐사자의 손에서 강제로 핸드폰을 낚아채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손이 있습니다. 전부 토하고 나니 정신이 바로 들었는지 파리한 인색의 KPC입니다.

“와, 진짜로, 해결됐네요…”

“형사님… 이제 저한테도 좀 신경써주시면 안될까요?”

“오늘 저랑 데이트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협박과 공갈과 난장판으로 이루어진 데이트 말이죠… 자세한 진상은 아직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리고 창문이고 엘리베이터고 개박살이 났으니 시말서를 써야할지도 모르겠죠. 당신 앞에서 방글방글 웃고 있는 저 놈 때문에… 그래도. 이 데이트의 막바지에 이르러 당신이 일주일간 썩빠지게 고생한 사건이 마무리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폭탄은 어찌죠? 당신한테 꼭 매어진 그 불길한 폭탄이요. 그때, KPC가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에서 펜치를 꺼내 그것을 자릅니다.

“짹.”

“이거~ 그냥 사실 케이블 타이였어요.”

“형사님도 참 겁이 많으시다니까~!”

탐사자, KPC 생환

보상: 이성 1d3만큼 회복, 로이고르와 손 잡고 이타과를 숭배하던 사교도 무리에 대한 단서

시나리오 BGM 추천

Please Sir!	
원하신다면 대기와 엔딩 브금을 바꾸셔도...?	
대기	Sugar Song and Bitter Step - Kekkai Sensen ED [Piano]
도입	4. - Overture: M. Gustave H - Alexandre Desplat
전화 (효과음) - 아이폰	IPHONE RINGTONE CALLING SOUND EFFECT
아이폰 탐사자가 이 벨소리를 싫어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Cell Phone Ringing Sound Effects
전화	연내추렐 unnatural ost 사인규명 (死因究明)
그 놈 등장	Crypt of the Necrodancer OST - March of the Profane (3-2 Hot)
짤! 폭탄이에요!	[Official Audio] IDIOTAPE - Sunset Strip (11111101)
롬서비스 식사	Nekomonogatari Kuro ost Blockhead
전시회를 보러 가요!	Undertale OST: 003 - Your Best Friend
전시회	SDR2 OST: -1-06- Beautiful Days [Piano Arrangement]
형사님! 고개 숙여요!	Taisei Iwasaki - "Snap Out" (Blood Blockade Battlefront OST)
스카이프릿지	Lobotomy corp OST - No warning
흰 두건 우르르	Undertale OST: 016 - Nyeh Heh Heh!
총격음 (효과음)	MP40 sound effects
총격음 뚝	PW:AA OST: 08 - Investigation ~ Cornered
이성판정 이후	【BOFU 2016】Gritty Dash
수족관	AdhesiveWombat - 8 Bit Adventure
눈물의 RP 타임	DETECTIVE CONAN - ORIGINAL SOUNDTRACK 032
민첩판정 이후	P5 OST 03 Escape
ED A/B	DETECTIVE CONAN - ORIGINAL SOUNDTRACK 025
엔딩 이후	명탐정코난 극장판 8기 은빛날개의 마술사 메인테마

《Thanks for》: 테스트 플레이, [후기](#) 등

☼ Q. 비행폴립의 부속물로 만든 쿠키는 탐사자나... 쿠키를 먹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도 없나요?

A. 그렇다고 쳐야 한다고 저 스스로와 합의를 봤습니다. 비행폴립의 부속물은 로이고르의 살점을 먹은 사람에게만 유효한 효과를 발휘한다거나... 설정하기 나름이니깐요.

혹시 합의를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쿠키 반쪽을 갈라먹은 탐사자 입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토하게 유도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번에는 쿠키를 먹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간

살인 병기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분군투한다는 백스토리를 차후에
넣어주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한건 사소한 문제는 무시하는 거지만요!

🌸 테스트 플레이에 참여해주신 @S님, @j님, @1님께 감사드립니다!!